

【韓国語 스피치原稿】

## 사랑을 전하기 위해

여러분,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을 되돌아 보세요. 뭔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싶을 때 "이것은 도대체 어디에 도움이 되는 걸까?" "역시 의미가 없는 걸까?" 라고 도전하지 않고 포기해 버린 것은 없습니까? 제가 오늘 여기서 그런 생각을 180도 바꾸는 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때 K-POP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그룹 중에서 특히 좋아하는 멤버가 있었습니다.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관련 SNS는 맨날 체크하고 출연하는 방송은 모두 녹화할 정도 많이 좋아했습니다. 외국인과 말하는 것이 질색이었던 제가 언젠가 그 사람을 만나면 한국어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내 사랑을 전하고 싶다는 마음만으로 저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외출할 때조차도 한국어 책을 갖고 다닐 정도 열중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한글을 읽을 수 있게 됐고 한국어로 노래도 할 수 있게 됐고 드디어 그 사람에게 한국어로 사랑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더 레벨업하고 싶어서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작년에도 그 사람을 보러 콘서트에 갔습니다. 콘서트장이 있는 빌딩근처를 걷고 있을 때 도움이 필요한 듯한 한국인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혹시 같은 콘서트에 온 사람인가 싶어서 용기를 내어 한국어로 말을 걸어 봤더니 역시 "콘서트장이 몇 층이에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층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외국인을 도와줬을 뿐이지만 저에게 있어서 정말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외국인에게 도움이 되는 곳에서 일하고 싶다는 꿈을 가졌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해외에 나가는 것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그건 코로나 바이러스가 수그러들면 한국인이 가고 싶은 나라 1위는 일본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일본에서의 한국어의 수요가 늘어날 겁니다.

그러나 인터넷에는 이런 것도 종종 보입니다. "한국어 학습은 시간 낭비다." 실제로 세계의 교육에서 중시되는 언어는 영어입니다. 게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전에는 일본에 많은 중국인 관광객이 방문해서 영어 다음으로 중국어 학습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는 다른 언어 보다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어 학습처럼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에 도전하는 게 의미 없다고 하는 건 이해할 수 없지 않나요?

저도 이걸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지금까지 그 결정적인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단 한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시작한 한국어 학습은 돌고 돌아서 제 인생의 다양한 곳에서 숨쉬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공부했으니까 그 콘서트날 그녀를 도울 수 있었고 확실한 미래의 꿈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뭔가에 도전하는 목적에 정해진 것은 없구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이것도 충분히 멋진 목적이었구나라는 것을 한국어 학습을 통해 몸으로 느꼈습니다. 자신이 배운 것이 사회에 언제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언뜻 보기에 소용이 없는 것도 상상조차 하지 못한 곳에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인생의 나침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도전하고 싶은 것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인생을 더 풍요롭게 하는 건 어떨까요?